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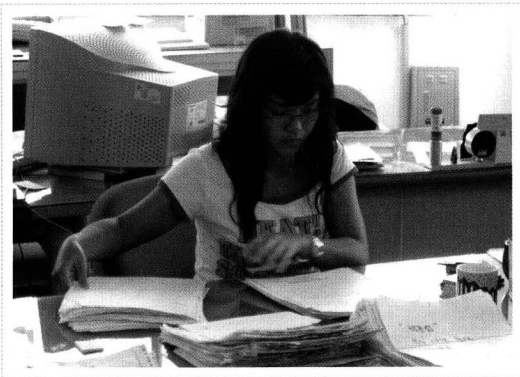
협회에서의 3개월간 취업연수를 마치며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협회 부산센터에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근무하였던 예비 직장인들의 취업연수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실>

생동감 넘치는 건강진단 현장체험

6월부터 시작된 취업연수는 무더운 여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다.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몰랐지만 연수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건강진단과 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등의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협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를 보면서 진로에 대한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는 장은주 학생.

내가 일한 곳은 건강진단부였는데, 주로 결과표에 도장을 찍고, 사업장에 발송할 것을 정리하여 봉투 작업을 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근로자들의 신상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결과표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 마지막 작업인 결과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어려웠는데, 사업장에 보내는 것과 수검자용, 노동부 제출용, 검진기

관용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제일 복잡하였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죄송스러울 정도로 물어가며 메모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니 언제부터인가 메모를 보지 않고도 결과표를 쉽게 만들 수 있었다. 특히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의 결과표를 모두 정리하여 봉투에 넣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그때마다 자신감도 생겼다.

건설현장에 건강진단을 지원 나갔을 때는 현장에 먼지도 많이 날리고 아침 일찍 나가야 했기 때문에 다소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사무실 업무와는 달리 더욱 활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쳐서 좋았다.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 체험으로 건강진단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간호와 학생으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간호사들의 활동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생각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3개월간 연수생활을 하면서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해서 확실히는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한다는 것과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나태해진 나를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다.

<장은주/대동대학교>

‘사업장’이라는 단어에 친숙해지다

학교를 다니다가 뭔가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싶고, 공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휴학을 하고 부산에 내려왔다. 그런데 마음먹었던 것만큼 계획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처음 얼마간은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다가 휴학 기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계획을 짜 보았다.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법했지만, 이미 흐트러진 생활리듬을 바로 잡기 위해선 뭔가 규칙적인 일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이곳저곳 알아보았다.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는데,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연수식으로 주 20시간씩 일하며 직장체험을 하는 것이다. 흔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듯 해서 연수생 등록을 하였는데, 며칠 후에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전화가 왔다. 마침 집과도 가깝고 그냥 흘러보내기 십상인 오전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 흔쾌히 연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어렵듯이 병원 같은 곳이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연수를 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첫 날 출근 후 과장님의 설명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하고 출장검진을 나가는 업무와 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

함께 일하게 된 연수생은 나를 포함해 총 4명이었는데, 부서별로 나누어 저서 일을 하게



길을 지나다가 건강진단 결과표를 정리했던 사업장이 보이면 내심 반가워진다는 안경조 학생.

되었고 나는 건강진단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건강진단부에서 우리 연수생들이 한 일은 비교적 단순한 것들이었지만, 그 양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검진 전·후의 신상이나 결과 입력에서부터, 도장 찍고, 결과물을 정리하는 등의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물어가면서 느릿느릿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내서 할 정도로 익숙해지고 편해졌다. 같이 일한 친구 중 한명은 정말 직원처럼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다 알고 있는 듯 했다. 어느 순간부터 ‘회사’가 아니라 ‘사업장’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우리가 정리했던 사업장이 보이면 정말 반가워지기까지 했다.

이젠 일이 너무 손에 익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일을 끝내고 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또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 할 텐데...’ 걱정의 말까지 나눌 정도가 되었다.

시간상으로만 따져보면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매일 얼굴 보며 지냈던 사람들과 수다도 떨면서 일했던 것이 정말 그리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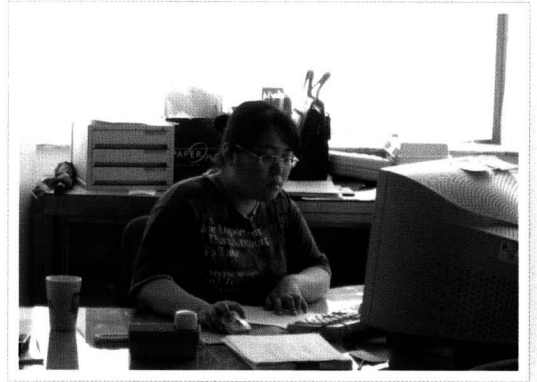
것 같다. 단순하고 흔한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면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을 많은 것을 얻었다.

〈안 경 조/경희대학교〉

3개월간의 소중한 경험

집과 가까운 곳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센터가 있었지만 연수생으로 일하기 전에는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연찮은 기회에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협회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새삼 이런 곳이 있다는 것과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매일 일만 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는 근로자들을 찾아가서 건강관리도 해주고 건강진단도 해주니 말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작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인 나도 그렇지만, 근로자들이 몇 명 없는 사업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천지혜 학생. 3개월간 근무하면서 일이 손에 익어서 그런지 연수를 마치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고 한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고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나 손에 익어버린 일들이라서 조금의 아쉬움까지 남는다. 3개월 동안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천 지 혜/대동대학교〉



정이 흠뻑 들어서인지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연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센터 건강진단부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사진의 왼쪽부터 정은경 간호사, 박현숙 간호사, 류희경 직원, 그리고 안경조, 장은주, 천지혜 학생과 김승현 병리사.